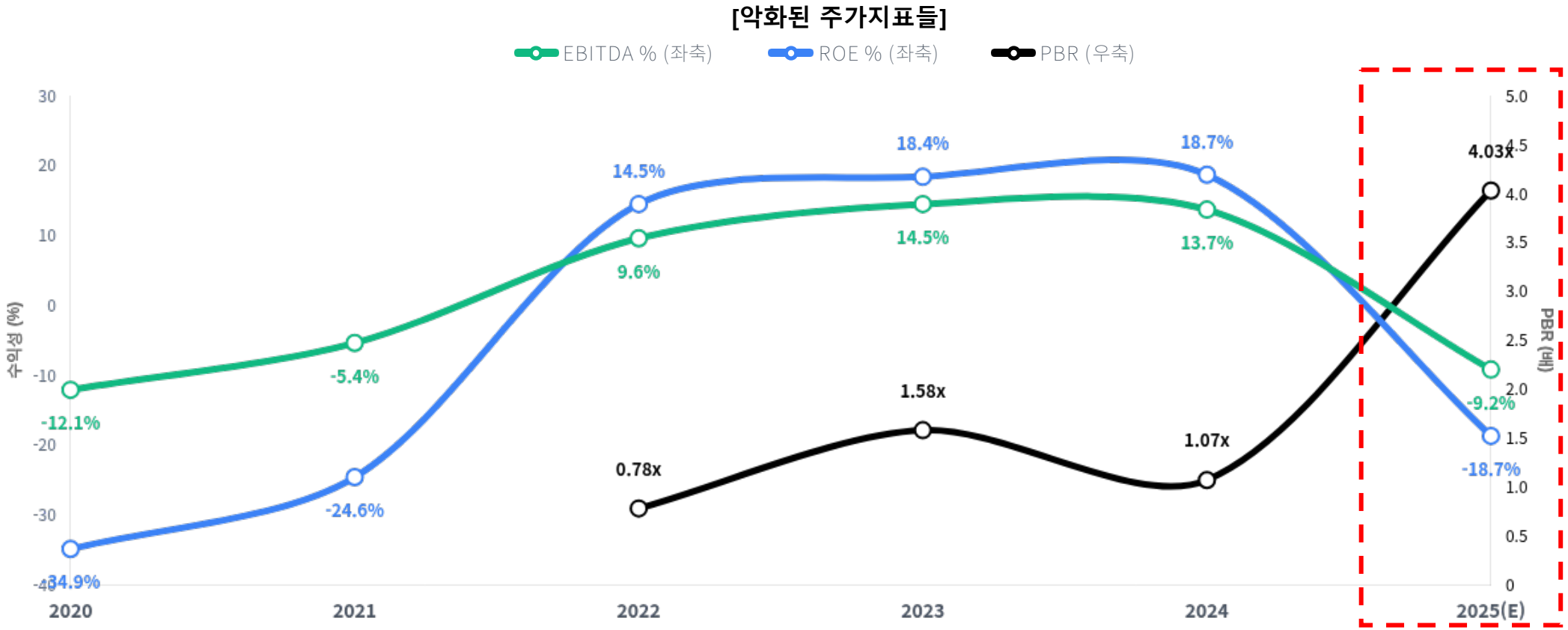
SNT홀딩스 – 스맥 소액주주 간담회

2025. 03. 19.

1. 심각한 실적 악화 및 소명되지 않은 대규모 자본 감소

□ 충격적인 실적 추락: 2025년 전년대비 매출 477억원, 영업이익 418억원, 당기순이익 431억원 각 감소

매출 1,536억원, 영업손실 179억원 및 당기순손실 210억원



1. 심각한 실적 악화 및 소명되지 않은 대규모 자본 감소

□ 대규모 자본 감소: 순자산 1,736억원(2025년 3분기)이 연말 949억원으로 4분기에만 787억원 감소한 심각한 상황

[2025년 3분기 공시]

이익잉여금(결손금)	6,044,763,153	4,402,294,459
자본총계	173,576,048,213	129,545,095,388
자본과부채총계	386,296,201,534	301,090,392,237

[2026. 2. 27.자 실적 공시]

4. 재무현황(단위 :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98,906,831,185	301,090,392,237
- 부채총계	203,958,179,318	171,545,296,849
- 자본총계	94,948,651,867	129,545,095,388
- 자본금	34,121,697,000	20,121,697,000

[소집공고상 자본변동표]

과 목	자본합계
2025년 01월 01일 (기초자본)	129,545,095,38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21,032,923,577)
보험수리적손익(세후)	539,193,985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308,088,081)
지분법자본변동	(74,662,411,00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42,934,695,880
자기주식의 처분	17,933,089,273
2025년 12월 31일 (기말자본)	94,948,651,867

[스맥 주총 설명자료]

제1호. 제30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당사는 2025년 매출 역성장 및 적자 전환을 기록했으나, 이는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2026년 정상화 될 것

제30기 연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30기(2025년)		제29기(2024년)		증감
연결 재무 제표	자산총계	298,907	100%	301,090	100%	(2,184)
	부채총계	203,958	68%	171,545	57%	32,413
	자본총계	94,949	32%	129,545	43%	(34,596)
연결 손익 계산서	매출액	153,591	100%	201,299	100%	(47,707)
	영업이익	(17,920)	-12%	23,955	16%	(41,875)
	당기순이익	(21,033)	-14%	22,134	14%	(43,167)

□ 유상증자로 429억원, 자기주식 처분 179억원에 따른 자본증가에도 불구, 2025년 당기순손실(-210억) 외 자본 744억이 추가로 감소한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외부요인' 때문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스맥 측의 설명

2. 실현불가능한 감액배당 약속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

자본준비금에서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금액: 30,000,000,000원(300억 원)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A)	자본금(B)	자본금의 1.5배(C)	감액가능한도(A-C)
134,833,234,364원	34,121,697,000원	51,182,545,500원	83,650,688,864원

구분	의견
목적	• 회사의 투자계획, 재무상태, 지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재무유연성 확보를 위함
근거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하여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음
향후 계획	•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액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할 예정 •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며, 다만 주권상장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장부가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됨

(단위: 억원)

구분	금액
2026 이익잉여금 (별도)	-136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300
전입후 이익잉여금	164

- 결손금 보전으로 300억을 이익잉여금 이전 후에도 비과세 배당 재원은 164억원으로 감소
- 천문학적인 위아공작기계 인수 비용, 경영권 보전을 위한 자사주 무상/할인 처분으로 인한 손실 등 심각한 손실
- 실현불가능한 감액배당 약속은 감언이설로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

3. 위아공작기계 인수, 실상은 사모펀드 주도의 경영권

위아공작기계 인수 구조



□ 위아공작기계 잔여재산 분배시 릴슨이 IRR 12%를 우선 분배받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스맥SPC가 분배받는 구조(릴슨이 스맥에 상환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4.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4.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IRR이 12%가 되도록 하는 금액을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여기서 IRR은 (i) 해당 주식의 발행 시점에 회사에 납입된 대금(관련 거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음수로 표현함)과 (ii) 회사가 해당 주식에 기초하여 주주에 지급한 금액(배당금, 상환대금, 감자대금 기타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수 이후에 별도로 지급한 관련 거래비용 및 세금은 공제하지 않고, 양수로 표현함)을 (i)의 지급일로부터 (ii)의 각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연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i)과 (ii)의 현재가치 합산액이 0이 되도록 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한다.
4.2 제4.1조에 따른 우선 분배 후에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 주주에 대해 해당 투자자의 IRR이 12%가 되도록 하는 금액을 보통주 주주에게 분배한다.

□ 릴슨의 상환청구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IRR 12%의 우선 수익율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스맥이 정작 위아공작기계 경영에서는 기타 비상무이사 2명(최영섭, 권오혁)을 임명하고 대표이사 및 나머지 상근이사는 모두 릴슨의 몫 ⟶ 즉, 경영권자는 릴슨

사내이사 주재진 630217-*******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사내이사 이현정 670208-*******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섭 690109-*******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권오혁 761013-*******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경래 810521-*******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감사 정윤희 910903-*******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대표이사 주재진 6302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401동 503호(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2025 년 07 월 14 일 취임	2025 년 07 월 15 일 등기	

3. 위아공작기계 인수,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우선수익 보장 부담 의혹

□ 릴슨의 상환청구시 내지 위아공작기계 잔여재산 분배시 릴슨에 대하여 IRR 12%의 우선 수익 보장 의무를 지는 스맥 → 공동투자약정에도 릴슨의 PUT OPTION 및 동반 매도권 행사시 동일한 취지의 우선 수익 보장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됨 (2025.5.12.자 투자설명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당사는 스맥에 2026.2.6.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하고, 2.25. 우선 수익보장 등 공동투자약정의 주요 조건에 관하여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

□ 스맥의 4분기 실적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대규모 자본감소는 스맥의 우선 수익보장 부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중임

[2025.5.12.자 투자설명서]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릴슨PE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예정인, 양도대상 주식의 수, 양도가격 등 양도의 주요 조건을 스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양도결정통지와 함께 릴슨PE는 스맥에 대하여 스맥 SPC 및 스맥 피지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릴슨SPC가 매수예정인에게 양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예정인에게 함께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Put Option)	-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스맥SPC(스맥 피지정자 포함)가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여하한 사유로 Q-IPO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한 스맥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릴슨PE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릴슨PE는 릴슨SPC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아공작기계, 중복상장금지로 인한 인수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행위가 소액주주 권리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를 낳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다양한 규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스케일업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코스닥 시장을 2단계로 나눠 승강제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026. 3. 18.자 한겨레 "정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은 1·2부 나눠 승강제 도입]

□ **정부의 중복상장금지 강행에 따라 위아공작기계 IPO를 통한 스맥의 인수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짐**

□ **스맥도 2025.5.12. 투자설명서를 통해 중복상장금지를 우회하기 위하여 릴슨에 대하여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사모펀드와의 협상력, 자금력 및 M&A의 경험 없이는 무용지물**

□ **고율의 우선 수익 보장의무를 지는 스맥으로서는 위아공작기계 인수 작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 후 2년 후에나 발생하는 우선협상권(4년이 지나면, 오히려 릴슨이 스맥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을 우선보장 받는 동반매도요구권과 풋옵션 행사 예정)으로 위아공작기계 인수작업을 완료한다는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늘어놓고 있는 중**

[스맥 주총 설명자료]

당사, 릴슨PE 협력 하 위아공작기계 인수

- 2025년 7월, 당사는 사업 역량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인 위아공작기계(국내 M/S 2위)의 지분 34.8%를 인수
- 당사와 릴슨 PE는 인수 과정부터 현재까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위아공작기계 카브아웃[1] 거래에서 당사는 향후 릴슨PE 보유 지분에 대해 우선협상권 및 콜옵션을 보유함

4. 투자 발목잡은 위아공작기계 인수 관련 우발채무 등

□ 2025.12.26. 배임적 성격의 자사주 할인/무상 처분행위로 촉발된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

□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계장부열람 거절 등 투자를 보류하게 된 주요 배경
- 배임적 성격의 자사주 처분
- 스맥서비스 내부거래 관련 자금 흐름 의문
- 해외 종속회사 회계처리 및 손실 반영 문제
- 위아 인수거래 구조적 불공정성 의혹

□ 정보 확인 시도 및 스맥 측 묵묵부답
- 2025.12.31. 회계장부 열람·등사 공문 발송 이후 수 십 차례에 걸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전박대
- 2026.2.11. ~ 13. 수차례에 걸친 주주제안 공문 내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 등 폐문부재 반송
- 2026.2.25., 2025.6.17.자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관련 공동투자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묵묵부답
- 2026.3.5., 2026.2.27.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묵묵부답

□ 스맥의 위아공작기계 인수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을 비롯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스맥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5. 스맥 이사진의 자질 부족, 경영권 보전을 위한 배임적 행위 난무

□ 스맥서비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도모: 스맥 측 정기주총 설명자료에서는 임직원 대여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끝끝내 밝히지 않은 채,'정상거래'로 주장

□ 배임적 자사주 처분: 소각하거나 전체 주주를 위해 신중한 처분 내지 보유해야 하는 자사주를 경영권 보전 목적으로 졸속 할인/무상 처분하여 최소 85억원의 손실 발생

□ '25.4분기 이례적인 손실은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으로 인한 손실 의혹을 더욱 키우는 중

□ 만약, 위아공작기계 공동투자약정에 명시된 스맥의 릴슨 사모펀드에 대한 우선 수익보장 약정의무가 2025.5.12.자 투자설명서에 누락되었다가 4분기 실적공시 자본감소로 드러난 것이라면, 회계장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자본시장 및 전체 주주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6. SNT홀딩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대 약속

□ 주주가치 희석 차단: 정당한 이유없는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금조달은 철저하게 지양

□ 자기주식 소각 및 불투명한 처분 근절: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배임적 자기주식 처분이나 부당한 내부거래 근절 및 보유 자기주식 소각 추진

□ 무보수 책임경영 및 소통 강화: 당사 추천 사내이사 회사 정상화 전까지 무급 근무 및 소액주주들과 정기/비정기 간담회 개최

7. 엄중한 현실 앞에 놓인 스맥의 미래와 SNT홀딩스의 과제

□ 4분기 실적 공시로 드러난 심각한 실적 악화, 순자산 급격한 감소 등 재무·회계 불투명성

□ 경영진의 설명과 다른 위아공작기계 인수의 허상

- 경영권 없는 보통주 투자(경영권은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인 사모펀드가 보유)
-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인 사모펀드의 상환청구시 또는 잔여재산분배시 보통주 주주 스맥SPC가 감당해야 하는 IRR 12%이라는 과다한 수준의 우선수익보장 부담
  → 공동투자약정상 릴슨의 동반매도요구권 및 풋옵션 행사시 동일한 취지의 우선수익 보장의무 추정
- 중복상장금지라는 정부시책으로 IPO는 인수자금 회수방안이 될 수 없음

□ 현 경영진의 근거없는 장미빛 전망을 믿고 묻지마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최영섭 대표 재임기간 동안의 경영 전반에 대한 엄중한 경영진단,
-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 위아공작기계 투자 관련한 공동투자약정, 주식매매계약, 이사회 결의 등 권리의무 관계 엄중한 확인,
- 위아공작기계 투자 성공가능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8. 경영권 방어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은 투자제한 요소

□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조합 설립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도구로 노동조합 설립을 활용하는 것은 스맥에 대한 투자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함

[2026. 3. 19.자 이데일리 "스맥 노사협 'SNT홀딩스 경영권 획득 시도 반대'... 노조 설립 가능성 시사]

스맥 노사협 "SNT홀딩스 경영권 획득 시도 반대"...노조 설립 가능성 시사

등록 2026-03-19 오후 1:37:38
수정 2026-03-19 오후 1:37:38
신하연 기자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스맥(099440)의 노사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SNT홀딩스의 경영권 획득 시도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략)

노사협의회는 경영권 변동이 현실화될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사협의회 측은 "고용 안정성과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